

소쉬르와 촘스키의 언어 연구 방향의 비교*

전 경 준
(한국교원대학교)

차 례

- | | |
|----------------------------|-----------------------|
| 1. 서론 | 3. 소쉬르 |
| 2. 촘스키의 언어 연구 프로그램 | 3.1. 소쉬르의 언어 연구 대상 |
| 2.1. 생성문법의 언어 연구의 대상 | 3.2. 랑그의 개념 |
| 2.2. 화자의 언어능력/내재적 언어 | 3.3. 랑그의 원천/언어 습득의 문제 |
| 2.3. 언어능력의 원천/언어 습득에 관한 문제 | 3.4. 언어의 다양성 |
| 2.4. 자연언어의 다양성 | 4. 결론 |

1. 서 론

금세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언어학자 두사람을 말하라면 아마도 소쉬르와 촘스키가 금방 떠오를 것이다. 이들 두 언어학자는 그만큼 20세기 언어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이 두 언어학자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이들이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특히 생성문법의 입장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여 촘스키에 나타나는 중요한 언어 연구의 방향들이 소쉬르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1916)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이들 두 언어학자를 각자 개별적으로 살펴볼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의문점들을 좀더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해보려는 것이다. 이처럼 한 언어학자만의 관점 속에서가 아닌 서로 다른 언어학자의 관점에서 서로를 살펴보는 것은 특정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상보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학문을 발전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¹⁾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인식론 연구의 대가인 Popper(1973)는 학문,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인간에 관계되는 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의 발전은 다양한 관점들을 대조하고, 다시 문제 삼고, 논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2. 촘스키의 언어 연구 프로그램

촘스키의 언어 연구에 대한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²⁾ 첫 번째는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 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자신의 언어학이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연구 대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지식으로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의에 관한 논의이며, 세 번째는 이러한 언어에 대한 지식을 화자가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하는 언어 지식의 원천(*l'origine du savoir linguistique*), 즉 언어 습득에 대한 문제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러한 언어 지식의 원천과 관련하여 자연언어들의 다양성에 관한 문제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촘스키의 언어 연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1. 생성문법의 언어 연구의 대상

생성문법과 분포주의 언어학은 그 연구 대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분포주의에서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언어 자료 그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 객관적 언어 자료를 통한 이러한 분석은 그 단위의 수효가 일정할 경우, 그러한 단위의 추출 및 그 단위들로만 이루어지는 체계에 대한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단위들이 결합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무한한 수의 연쇄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도 전체적인 기술이 불가능하다. 특히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문장은 이미 예측할 수 있듯이 그 수가 무한하고, 따라서 그 수가 무한한만큼 구체적이면서도 전체적인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하며, 이처럼 전체적인 연구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분적인 기술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촘스키는 언어 연구의 초점을 인간의 행동이나 행동의 산물로부터 그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신/두뇌 상태로 이동시킨다.³⁾ 언어 연구에 대한 관심을 이와 같이 이동시킨다는 것은 언어학이 화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발화체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화체는 단지 그 발화체를 생성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학의 진정한 대상인, 화자가 내재화시키고 있는 언어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는 지표일 뿐이다.⁴⁾ 즉 생성문법에 있어서 언어를 기술한다는 것은 발화체/자료체에 대한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무한한 발화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숨어있는 규칙, 다시 말해 그 언어에 대한 지식에 관한 이론을 수립하는 것이다.⁵⁾

2) 본 논문에서는 주로 Chomsky(1965), (1986), (1990)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중 Chomsky(1965)는 1971년 불어 번역본을 사용했으며, Chomsky(1990)은 Chomsky(1987) "Language in a Psychological Setting"을 불어로 번역해서 *Recherches linguistiques de Vincennes* 19호 (1990)에 실린 논문이다.

3) "(...) the shift of focus was from behavior or products of behavior to states of the mind/brain that enter into behavior. If one chooses to focus attention on this latter topic, the central concern becomes knowledge of language." (Chomsky 1986, p. 3)

"C'était là un changement de point de vue d'importance : on passait du comportement et de ses produits au système de connaissances inscrit dans l'esprit/le cerveau qui les rendent possible." (Chomsky 1990, p. 38)

4) "Le comportement cesse d'être un objet d'étude en soi et considéré comme fournissant des indices concernant le système intériorisé qui est notre vrai objet d'étude, une langue interne, déterminant la forme, les propriétés structurales et le sens des expressions." (Chomsky 1990, p. 38)

5) "A generative grammar is not a set of statements about externalized objects constructed in some manner.

2.2. 화자의 언어능력/내재적 언어

이처럼 생성문법은 한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토박이 화자는 무한수의 언어 자료에 해당하는 그 언어의 모든 가능한 문장과 불가능한 문장을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그러면서도 잘 형성된 문장을 끄집어내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규칙 다시 말해 그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규칙인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생성문법은 한 언어에서 가능한 모든 문장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숨은 규칙, 다시 말해 어떤 언어 공동체의 아이이든 시간에 모두가 거의 비슷한 시기 동안 자신이 속해 있는 언어공동체의 언어를 별로 힘들이지 않고 또 특별한 훈련이나 외적인 교육없이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인간에게 특유하다고 가정하는 인간의 자신의 언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토박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언어에 대한 지식을 화자의 언어능력(*la compétence linguistique*; Chomsky 1965)이라 부르며, 또한 이러한 화자의 언어능력은 화자의 정신/두뇌 속에만 있는 것이므로 내재적 언어(*la langue interne*; *Internalized Language*; *I-Language*; Chomsky 1986)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화자의 언어능력 혹은 내재적 언어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촘스키는 언어의 구체적 사용(결과)에 해당하는 언어수행(*la performance*) 혹은 외재적 언어(*la langue externe*; *Externalized Language*; *E-Language*)라는 개념을 언어능력 혹은 내재적 언어에 대립시킨다.⁶⁾

그러면 화자가 정신/두뇌 속에 가지고 또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 자신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화자의 언어에 대한 지식, 즉 화자의 언어능력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불행하게도 화자는 자신이 항상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언어에 대한 지식이 명시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러한 지식은 화자의 머리 속에 내재화되어 있어 화자는 그 지식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촘스키는 화자의 언어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성질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혀 내는 것(*le problème de la nature du savoir linguistique*)이 언어학자의 임무라고 말한다.⁷⁾ 이처럼 화자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자신의 언어에 대한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여 그 모형을 명시적으로 수립하는 이론이 바로 문법, 즉 생성문법이다.⁸⁾

Rather, it purports to depict exactly what one knows when one knows a language.” (Chomsky 1986, p. 24)

6) “Nous établissons donc une distinction fondamentale entre la compétence (*la connaissance que le locuteur-auditeur a de sa langue*) et la performance (*l’emploi effectif de la langue dans des situations concrètes*).” (Chomsky 1965, p. 13)

“Let us refer to such technical concepts as instances of “externalized language” (E-language), in the sense that the construct is understood independently of the properties of the mind/brain. Under same rubric we may include the notion of language as a collection (or system) of actions or behaviors of some sort.” (Chomsky 1986, p. 20)

7) “Le problème, pour le linguiste aussi bien que pour l’enfant qui apprend la langue, consiste en ceci: déterminer, à partir des données de la performance, le système sous-jacent de règles qui a été maîtrisé par le locuteur-auditeur et qu’il met en usage dans sa performance effective. (...) elle [la théorie linguistique] s’attache à découvrir une réalité mentale sous-jacente au comportement effectif.” (Chomsky 1965, p. 13)

“La grammaire d’une langue se propose d’être une description de la compétence intrinsèque du locuteur-auditeur idéal. (...) nous pouvons, (...), l’appeler grammaire générative.” (Chomsky 1965, pp. 14-15)

8) “To summarize, we may think of a person’s knowledge of a particular language as a state of the mind,

이와 같은 언어에 대한 지식의 내용/성질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촘스키는 화자의 언어에 대한 지식은 근본적으로 규칙들로 이루어진 연산체계(un système computationnel)로, 어떤 언어를 안다는 것은 이러한 규칙 체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⁹⁾ 이는 화자가 내재화하고 있는 언어 지식을 언어 단위들의 집합 혹은 그러한 단위들이 서로 관계 맺고 있는 하나의 체계라기 보다는 이러한 단위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들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촘스키가 말하는 화자의 언어 지식에 어휘 단위들이 포함되고 있는지, 포함된다면 그것의 지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다.¹⁰⁾

촘스키의 연구 대상인 화자의 언어 능력이 있어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화자의 언어에 대한 지식, 즉 언어능력은 본고에서 계속 사용하는 “화자의”라는 수식어가 시사하고 있는 바처럼 특정 화자의 개인적인 언어 능력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촘스키가 말하는 화자의 언어 능력이란 한 언어공동체의 구성원 전체에게 공통된 체계가 아니라, 관찰 대상이 되는 특정 화자의 개인적인 언어에 대한 지식이다. 따라서 한 언어공동체에 속하는 두 화자는 서로 다른 언어능력을 내재화할 수 있고, 이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언어능력이 한 동일한 언어공동체에서 반드시 모든 화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촘스키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언어능력이란 한 언어공동체의 언어능력이 아니므로 (더구나 촘스키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언어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¹¹⁾) 이 언어공동체에는 구성원 각자의 개별적인 언어능력들의 집합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언어능력이란 각 화자에 개인적인 것이어서 특정 언어공동체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화자들이 동일한 공통된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화자들의 개인적인 언어능력들이 서로 의사 소

realized in some arrangement of physical mechanisms. We abstract the I-language as “what is known” by a person in this state of knowledge. This finite system, the I-language, is what the linguist’s generative grammar attempts to characterize.” (Chomsky 1986, p. 40)

“Quel est le système de connaissances inclus dans l’esprit/le cerveau d’une personne qui parle et comprend une langue particulière? Qu’est-ce qui constitue le langage qu’un locuteur maîtrise et connaît? Une théorie qui traite de ces questions pour une langue particulière est appelée une «grammaire» de cette langue, ou, en termes techniques, une «grammaire générative» de cette langue; le terme «grammaire générative» ne désigne rien d’autre que qu’une théorie entièrement explicite qui puisse faire des prédictions empiriques et donc être soumise à vérification à la manière des sciences expérimentales.” (Chomsky 1990, p. 27)

- 9) “A la première (qu’est-ce que la connaissance d’une langue?) on répondit : une langue est un système computationnel, un ensemble de règles. Connaître une langue, c’est connaître ce système de règles.” (Chomsky 1990, p. 37)
- 10) 물론 어휘 단위들이 문장 속에서 서로 결합될 때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는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예를 들면, 의미역 이론이나, 하위범주화, 투영원리 등이 어휘적 특성과 통사부와의 관계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단위에 대한 언급의 불분명성은 이처럼 단위들이 결합시에 어떠한 규칙/원리에 따라 결합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화자의 언어 지식에 단위들의 집합인 어휘부(lexique)가 포함되고 있는지, 그리고 포함되어 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화자의 언어에 대한 지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화자의 언어 지식에 대한 촘스키의 또다른 특징인 언어능력의 개인적인 측면의 강조와 연관되는 문제일 것이다. 사실 한 언어공동체 구성원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휘 단위들의 수나 질은 서로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들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어휘에 관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안정된 지식의 상태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언어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휘의 총체라는 실체가 과연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촘스키는 언어 연구에 보다 구체적인 실체를 부여하기 위해서 모든 화자들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규칙의 문제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어휘 단위들의 문제는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 11) Chomsky(1980)에서는 어떤 한 언어공동체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유된 언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superlangue”라고 부른다.

통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화자의 언어에 대한 지식의 성질은, 그러면 화자가 어떻게 그러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가하는 문제(*le problème de l'origine de connaissance linguistique/le problème de l'acquisition du langage*)와 화자가 내재화하는 각각의 언어에 대한 지식이 한 언어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할만큼 충분히 유사한 언어능력이 되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2.3. 언어능력의 원천/언어 습득에 관한 문제

그러면 한 언어를 말하는 화자는 그 언어에 대한 언어능력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촘스키는 인간의 언어에 대한 지식은 백지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정한다. 이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인자 속에 결정되어 있는 상태(*propriétés du patrimoine génétique*)를 촘스키는 '최초상태 (*l'état initial*)'라고 부른다.¹²⁾ 이러한 '최초상태'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상태이며, 따라서 모든 자연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이것에 대한 이론이 '보편문법(*Grammaire universelle*)'이다.

그러면 이러한 최초상태에서 한 언어, 즉 화자 자신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인 각 개별 언어에 대한 화자의 언어능력(*la compétence linguistique*)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촘스키는 화자의 언어능력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최초상태'에 후천적인 언어 경험이 주어지면 이 최초상태가 발달/성장하여 '안정상태(*l'état stable*)'에 도달하게 되고 이러한 '안정상태'가 바로 화자의 언어능력이라고 말한다.¹³⁾

이처럼 언어능력의 습득이 최초상태에서 후천적 경험을 통해 안정상태로 발달 또는 성장해 가는 것이라면, 후천적 언어 경험이 개인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또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모든 가능한 언어 자료

12) "En termes modernes nous réinterpréterons l'idée platonicienne de réminiscence comme désignant notre patrimoine génétique qui détermine l'état initial de la faculté de langage de même qu'il détermine le fait que nous avons des bras et non des ailes ou que nous atteignons la maturité sexuelle à un certain âge si les conditions externes tels que le niveau nutritionnel permettent aux processus internes de maturation de se déclencher." (Chomsky 1990, p. 29)

13) "The language faculty is a distinct system of the mind/brain, with an initial state S0 common to the species and apparently unique to it in essential respects. Given appropriate experience, this faculty passes from the state S0 to some relatively stable steady state Ss, which then undergoes only peripheral modification (say, acquiring new vocabulary items). The attained state incorporates an I-language (it is the state of having or knowing a particular I-language). UG [Universal Grammar] is the theory of S0; particular grammars are theories of various I-languages." (Chomsky 1986, p. 25)

"Pour ce qui concerne le langage nous ferons la même abstraction et poserons que la faculté de langage a un état initial génétiquement déterminé, propre à tous les membres de l'espèce humaine et unique à celle-ci. Nous savons que cet état initial se développe et, selon les conditions d'exposition, aboutit à des états stables différents, l'ensemble des langues maîtrisables." (Chomsky 1990, p. 29)

"Il est clair que ce processus de maturation est soumis à ses lois propres : l'apprentissage d'une langue n'est pas quelque chose que fait l'enfant, c'est quelque chose qui lui arrive quand il est placé dans un environnement approprié tout comme son corps se développe de façon prédéterminée quand on lui fournit des stimulations externes et nutritionnelles appropriées." (Chomsky 1990, p. 30)

를 빠짐없이 제공하기에는 후천적 경험이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모든 인간은 거의 동일한 일정한 시기에 완전한 언어능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언어공동체 내에서도 언어 경험이 이처럼 서로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공동체의 화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사한 언어능력을 가지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촘스키는 언어능력의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선천적인, 따라서 모든 화자들에게 공통적인 ‘최초상태’이며, 후천적 언어 경험이 하는 일은 화자의 언어능력을 직접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상태’가 개별언어의 언어능력으로 잘 자라도록 - 피어나도록 - 하는 촉매적 역할(un effet «déclencheur»)을 할뿐이라고 주장한다.¹⁴⁾ 이처럼 촘스키에게 있어서 언어 습득이란 ‘최초상태’에서 적절한 후천적 언어 경험을 통해서 ‘안정상태’로 발달 또는 성장해 가는 것을 뜻한다. 이때 언어능력의 형성에 더 중요한 것은 후천적 경험보다 선천적인 ‘최초상태’로, 이는 어린아이의 팔, 다리 등이 후천적 경험, 즉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유전자 속에 결정되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다만 적절한 환경(영양분)이 주어지면 어른의 팔, 다리가 되는 것에 비교해볼 수 있다. 이처럼 영양 섭취 없이 신생아의 신체가 어른의 신체로 성장할 수는 없지만, 섭취되는 영양 자체가 어른의 팔, 다리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언어 경험 없이 ‘최초상태’가 ‘안정상태’로 전개될 수 없지만 언어 경험 자체가 안정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언어 경험은 ‘최초상태’가 ‘안정상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촉매적 역할을 할뿐이라는 것이다.¹⁵⁾

2.4. 자연언어의 다양성

앞절에서 촘스키는 화자의 언어능력의 주된 구성 요소는 선천적 언어 지식인 ‘최초상태’라고 가정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 개별 언어의 화자의 언어능력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선천적인 ‘최초상태’가 성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생성문법에서 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능력의 주된 근원이 되는 ‘최초상태’로 이에 대한 이론이 보편문법이다. 그런데 보편문법이 모든 인간의 언어에 공통적인 보편소들만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보편적 원리들만을 가지고 있는 ‘최초상태’가 성장하여 도달하게 되는 개별 언어의 화자의 언어능력도 보편적인 요소들로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자연언어는 동일하지 않고, 그와는 반대로 매우 다양하다. 다시 말해 영어를 쓰는 사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14) "Applied to language, this essentially Platonistic conception would suggest that knowledge of a particular language grows and matures along a course that is in part intrinsically determined, with modifications reflecting observed usage, rather in the manner of the visual system or other bodily "organs" that develop along a course determined by genetic instructions under the triggering and shaping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Chomsky 1986, p. 2)

"Si un scientifique extraterrestre devait s'intéresser rationnellement à ce qui se passe dans une communauté linguistique donnée, il ne manquerait pas de conclure que le savoir linguistique est presque entièrement donné à la naissance. Le fait que cela ne soit pas vrai, ou du moins pas entièrement vrai est très étonnant et pose de nombreux et sérieux problèmes à la psychologie, la physiologie et la biologie, y compris la biologie de l'évolution." (Chomsky 1990, p. 28)

15) 따라서 생성문법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일 뿐만 아니라 화자의 언어능력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최초상태’를 주된 연구의 관심으로 삼아, 이에 대한 이론인 보편문법의 탐구에 대부분의 노력을 쏟고 있다.

아이는 영어를 말하고, 불어를 쓰는 사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는 불어를 말하게 된다. 이는 인간이 동일한 '최초상태'를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경험하게 되는 언어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능력을 가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천적인 '최초상태'가 이러한 다양성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언어들의 차이점 (혹은 동일한 언어공동체 내에서도 각 화자들의 언어능력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촘스키는 '최초상태'가 고정적인 보편적 요소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의 선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그 선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매개변인(paramètres)'을 포함하고 있어서 '최초상태'가 그대로 '안정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인'이라는 요소의 조절을 거쳐서 '안정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때 '매개변인'의 가치 고정에 역할을 하는 것이 후천적 언어 경험이다. 즉 인간의 정신/두뇌는 어떤 종류의 언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최초상태'로부터 출발하여, 후천적 언어 환경인 특정 언어에 노출되면서 점차적으로 매개변인의 가치들이 선택되어 고정되면서 '안정상태'에 도달하여 그 언어를 말하는 화자의 언어능력이 된다는 것이다¹⁶⁾. 이처럼 한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화자의 자신의 언어에 대한 언어능력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인자에 결정되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보편 원리와 가치가 고정되지 않은 매개변인들로 이루어진 '최초상태'의 매개변인이 후천적 언어 환경에 의해 고정된 상태로 진행된 것이다.

이상에서 촘스키의 언어 연구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촘스키의 언어 연구 프로그램에서 특기할 사항은 우선 연구 대상이 구체적인 발화체가 아니라 이러한 발화체의 생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숨어 있는 체계인 화자가 정신/두뇌 속에 내재화하고 있는 자신의 언어에 대한 지식이며, 다음으로 이러한 언어에 대한 지식, 즉 화자의 언어능력은 무엇보다도 규칙들로 이루어진 체계이며 또한 언어공동체 전체에 공통되는 지식이나 각 화자 개인이 개인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는 언어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능력은 후천적 경험에 의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점이다.

3. 소쉬르

본 절에서는 상기에서 살펴본 촘스키의 언어 연구 프로그램과 대조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소쉬르의 입

16) "Ce qui ne veut pas dire que l'environnement est sans pertinence. Il est responsable des choix non fixés par la faculté de langage, ce qui donne les différentes langues naturelles." (Chomsky 1990, p. 30)

"L'état initial de la faculté de langage y est conçu comme un ensemble des sous-systèmes ou «modules», chacun défini par des lois propres très générales. Chacun des modules admet un nombre restreint de variations. On peut concevoir l'ensemble du système comme un réseau complexe associé à un ensemble de commutateurs (paramètres). Le réseau est invariant mais chaque commutateur peut occuper deux positions." (Chomsky 1990, p. 38)

"l'état initial de la faculté de langage détermine les types possibles de règles et leur mode d'interaction. On acquiert une langue par sélection des règles appropriées sur la base de faits d'accès immédiat. L'expérience fournit un système de règles par l'intermédiaire du système d'acquisition de la faculté de langage." (Chomsky 1990, p. 37)

장은 어떠한지를 소쉬르의 *Cour de linguistique générale*(1916)(이하 CLG)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쉬르와 촘스키의 유사함과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3.1. 소쉬르의 언어 연구 대상

소쉬르 언어학에 있어서 우선 다루어야 할 언어학의 일차적 연구 대상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랑그(langue)이다. 이러한 주된 연구 대상에 대한 논의는 ‘일반언어학 강의’의 초반부인 제3장 ‘Objet de linguistique’와 제4장 ‘Linguistique de la langue et linguistique de la parole’에서 다루고 있다. CLG 제3장 24-25쪽에서 소쉬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 il faut se placer de prime abord sur le terrain de la langue et la prendre pour norme de toutes les autres manifestations du langage. (CLG, p. 25)

(우선 무엇보다 랑그의 영역에 위치해서 랑그를 언어(활동)의 다른 모든 발현에 대한 규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소쉬르는 이처럼 “어떤 측면으로부터 언어의 문제를 다루든, 어느 곳에서도 언어학의 전적인 대상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며 어디에서나 이러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므로(Ainsi, de quelque côté que l’on aborde la question, nulle part l’objet intégral de la linguistique ne s’offre à nous; partout nous rencontrons ce dilemme)”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단 한가지의 해결책만이 있을 뿐(Il y a, selon nous, qu’une solution à toutes ces difficultés)”이라고 말하면서 언어학은 무엇보다도 랑그의 영역에 위치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소쉬르는 랑그가 화자의 입을 통해 실현된 구체적인 발화체와는 다른 것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랑그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빠롤(parole)을 제시한다. “언어(활동) 연구에는 두 부분이 있어, 하나는 본질적인 것으로 랑그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랑그는 본질상 사회적이며 개인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이 연구는 전적으로 정신적인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부차적인 것으로 언어(활동)의 개인적인 면, 즉 발성을 포함한 빠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정신적이고 물리적”¹⁷⁾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소쉬르는 랑그의 언어학과 빠롤의 언어학을 구분하면서 “랑그만을 유일한 대상으로 하는 엄밀한 의미의 언어학을 빠롤의 언어학과 혼동해서는 안되며”¹⁸⁾, 자신의 언어학에서는 “전적으로 랑그의 언어학만을 다루며, 이 두 영역을 가르는 경계를 절대 지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¹⁹⁾고 함으로써 자신의 언어학의 대상이 랑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때 랑그란 화자 개인에 의해 실현되는 구체적인 빠롤과는

17) “L’étude du langage comporte donc deux parties : l’une, essentielle, a pour objet la langue, qui est sociale dans son essence et indépendante de l’individu; cette étude est uniquement psychique; l’autre, secondaire, a pour objet la partie individuelle du langage, c’est-à-dire la parole y compris la phonation : elle est psycho-physique.” (CLG p. 36)

18) “Mais il ne faudra pas [une linguistique de la parole] confondre avec la linguistique proprement dite, celle dont la langue est unique objet.” (CLG pp. 38-39)

19) “Nous nous attacherons uniquement à cette dernière[la linguistique proprement dite/la linguistique de la langue], (...), nous nous efforcerons de ne jamais effacer les limites qui séparent les deux domaines.” (CLG p. 39)

달리 “개개인이 이 능력[언어활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집단이 채택한 **약정의 총체**”²⁰⁾로 혹은 “**빠들의 실체를 통해 동일한 공동체에 속하는 화자들 속에 저장된 보물이며, 각자의 뇌리 속에**, 혹은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모든 **개인의 뇌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문법 체계**”²¹⁾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학의 대상에 대한 소쉬르의 관점은 언어학이란 구체적으로 실현된 자료체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 이론을 수립해야 한다는 미국의 분포주의적 귀납주의(inductivisme)와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구체적 발화체를 말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숨어있는/뇌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체계에 관한 이론 수립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쉬르가 언어학의 일차적 연구 대상을 랑그로 규정하는 것은 촘스키가 자신의 언어 연구의 대상을 구체적 발화체가 아니라 이러한 발화체들을 만들어 내게 해주는 숨어있는 규칙이라는 관점과 일치한다. 아마도 이러한 관점의 일치로부터 촘스키 스스로가 자신의 언어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화자의 언어능력과 소쉬르의 랑그를 동등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일 것이다.²²⁾

3.2. 랑그의 개념

그러나 주된 연구 대상이 구체적 발화체가 아닌, 그러한 발화체를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인 숨어 있는 체계라는 점을 넘어서서, 그러한 숨어 있는 체계의 성질/내용에 있어서는 소쉬르와 촘스키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촘스키의 언어능력은 무엇보다도 규칙들의 체계이며, 또한 개인적인 것이다.

우선 이러한 특성 가운데 언어능력이 규칙들의 체계라는 점과 관련하여 소쉬르의 랑그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자.

소쉬르는 “랑그는 관념을 나타내는 기호 체계(La langue est un système de signes exprimant des idées. CGL, p. 33)”라고 말하면서 랑그를 무엇보다도 기호의 체계로 간주한다. 이러한 언급은 CLG의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²³⁾ 이와 같이 랑그를 기호의 체계로 간주하고 그러한 기호들의 성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CLG의 제1부 일반원리 부분이다. 그러나 소쉬르의 논의가 이처럼 대부분 체계

20) “un ensemble de conventions nécessaires, adoptées par le corps social pour permettre l'exercice de cette faculté chez les individus.” (CLG p. 25)

21) “C'est un trésor déposé par la pratique de la parole dans les sujets appartenant à une même communauté, un système grammatical existant virtuellement dans chaque cerveau, ou plus exactement dans les cerveaux d'un ensemble d'individus.” (CLG p. 30)

22) “Nous établissons donc une distinction fondamentale entre la compétence (la connaissance que le locuteur-auditeur a de sa langue) et la performance (l'emploi effectif de la langue dans des situations concrètes). (...) De ce fait, la théorie linguistique est mentaliste, au sens technique de ce mot, puisqu'elle s'attache à découvrir une réalité mentale sous-jacente au comportement effectif. (...) La distinction que je signale ici s'apparente à la distinction «langue-parole» chez Saussure.” (Chomsky 1965, pp. 13-14)

23) “c'est un système de signes où il n'y a d'essentiel que l'union du sens et de l'image acoustique, et où les deux parties du signe sont également psychiques.” (CLG, p. 32)

“La langue existe dans la collectivité sous la forme d'un somme d'empreintes déposées dans chaque cerveau, à peu près comme un dictionnaire dont tout les exemplaires, identiques, seraient répartis entre les individus.” (CLG, p. 38)

의 단위들인 기호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랑그의 속성에 있어서는 단순한 기호의 체계로만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랑그를 정의하는 서론 부분에서는 랑그에 규칙체계를 포함시키는 언급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처음부터 소쉬르는 언어란 “이 능력[언어활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집단이 채택한 **약정의 총체**”²⁴⁾, “**빠롤의 실체를 통해 동일한 공동체에 속하는 화자들 속에 저장된 보물이며, 각자의 뇌리 속에, 혹은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모든 개인의 뇌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문법 체계**”²⁵⁾라고 하면서 “사전과 문법이 랑그의 충실한 표상이 될 수 있다”²⁶⁾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들은 모두 랑그가 기호들과 그러한 기호들의 관계망으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체계가 아니라 이 체계 속에는 이들 단위들의 결합에 관한 규칙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²⁷⁾ 이처럼 소쉬르의 랑그는 규칙과 기호들의 체계가 공존하는 개념으로 어떤 면에서는 촘스키의 언어능력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²⁸⁾

24) “un ensemble de conventions nécessaires, adoptées par le corps social pour permettre l’exercice de cette faculté chez les individus.” (CLG p. 25)

소쉬르에게 있어서 약정(conventions)이란 언어가 채택하고 있는 규칙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호의 기표와 기의가 맺고 있는 관계를 약정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어쨌든 소쉬르의 “la langue est une convention, et la nature dont on est convenu est indifférente (CLG, p. 26)”와 같은 언급을 고려하면 약정이란 언어가 채택하고 있는 규칙이라기 보다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25) “C’est un trésor déposé par la pratique de la parole dans les sujets appartenant à une communauté, un système grammatical existant virtuellement dans chaque cerveau, ou plus exactement dans les cerveau d’un ensemble d’individus.” (CLG, p. 30)

26) “C’est cette possibilité de fixer les choses relatives à la langue qui fait qu’un dictionnaire et une grammaire peuvent en être une représentation fidèle.” (CLG, p. 32)

27) 랑그에 규칙 체계를 포함시키고 있음은 소쉬르가 랑그를 체스에 비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Une comparaison avec le jeu d’échecs le fera mieux sentir. Là, il est relativement facile de distinguer ce qui est externe de ce qui est interne : (...); interne, au contraire, tout ce qui concerne le système et les règles. Si je remplace des pièces de bois par des pièces d’ivoire, le changement est indifférent pour le système : mais je diminue ou augmente le nombre des pièces, ce changement-là atteint profondément la «grammaire» du jeu.” (CLG, p. 43)

소쉬르가 랑그를 교향악에 비교하는 다음과 같은 귀절은, - “언어를 교향악과 비교할 수 있는바, 교향악의 실재는 연주 방법과 무관하다. 교향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실수는 이 실재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다. (Sous ce rapport, on peut comparer la langue à une symphonie, dont la réalité est indépendante de la manière dont on l’exécute; les fautes que peuvent commettre les musiciens qui la jouent ne comportent nullement cette réalité. CLG, p. 36)” -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만약 교향악을 연주자에게 연주하는 방식을 알려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규칙 체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교향악을 단지 연주자가 보고 연주하는 악보로 간주한다면 체계 속의 단위로 (마치 음소가 체계에서의 단위이고 실제로 발생된 말소리가 아닌 그것의 모델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소쉬르의 언급은 (“A cette séparation de la phonation et de la langue...”) 소쉬르가 두 번째의 의미로 교향악을 비유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28) 이러한 포괄적인 연구 대상이 언어 연구에 있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언어학이란 언어에 관한 모든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연구 대상에 되도록 많은 언어적 현상들이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소쉬르 자신도 밝히고 있듯이 언어의 잡다한 현상들 “가운데 진정하고도 유일한 언어학의 대상이 무엇인지(reconnaitre quel est son véritable et unique objet. CLG, p. 13)”를 인식하는데 유익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언어학의 대상에 기호의 문제가 들어오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의 문제가 개입되고, 이러한 문제는 이어서 언어공동체라는 것의 복잡성 때문에 (언어공동체는 소쉬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동질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규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여하튼 소쉬르가 말하고

그런데 기호 체계를 이처럼 랑그에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면, 필연적으로 한 언어 공동체의 각 화자 개인이 이러한 기호 체계를 내재화하고 있고, 이처럼 내재화하고 있는 기호의 동일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²⁹⁾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소쉬르가 채택하고 있는 관점은 랑그란 사회적이라는 것이다.³⁰⁾ 이처럼 언어공동체 내에서 기호들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요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Quelle est l’origine de cette cristallisation sociale?” CLG, p. 29) 소쉬르는 “만약 모든 개인 속에 축적된 음성 영상의 총합을 포괄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랑그를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에 접할 수 있고”, “랑그란 그 어느 개인 속에서도 완전할 수가 없고, 집단 속에서만 완전하게 존재하며”³¹⁾, “집단적 동의에 의해 인정된 연합들의 총체가 랑그를 구성한다”³²⁾고 말한다. 이처럼 “랑그는 각 개인의 뇌 속에 축적된 각인의 총체로 이루어진 형태로서 집단 속에 존재하며”,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고 소유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러면서도 각자의 속에 있는 그 무엇이다.”³³⁾

이처럼 랑그를 사회적으로 보는 관점은 촘스키가 언어능력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과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소쉬르와 촘스키의 모든 차이점은 이러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또한 촘스키의 주된 관심이 언어 단위들의 규칙에 있는 반면, 소쉬르의 주된 관심은 언어 기호들과 이 기호들이 유지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 그러한 차이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³⁴⁾. 다음에서는 이러한 점이 화자가 내재화 하게 되는 언어의 습득 문제와 관련하여 소쉬르로 하여금 어떠한 관점을 취하게 하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있는 “언어학의 전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상(l’objet à la fois intégral et concret de la linguistique)”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 29) “Entre tous les individus ainsi reliés par le langage, il s’établira une sorte de moyenne : tous reproduisent, - non exactement sans doute, mais approximativement - les mêmes signes unis aux mêmes concepts.” (CLG, p. 29)
- 30) “C’est à la fois un produit social de la faculté du langage et un ensemble de conventions nécessaires, adoptées par le corps social pour permettre l’exercice de cette faculté chez les individus.” (CLG, p. 25)
 “L’étude du langage comporte donc deux parties: l’une, essentielle, a pour objet la langue, qui est sociale dans son essence et indépendante de l’individu; (...)” (CLG p. 36)
 “il faut une masse parlante pour qu’il y ait une langue. A aucun moment, et contrairement à l’apparence, celle-ci n’existe en dehors du fait social, parce qu’elle est phénomène sémiologique. Sa nature sociale est un de ses caractères internes.” (CLG, p. 112)
- 31) “Si nous pouvions embrasser la somme des images verbales emmagasinées chez tous les individus, nous toucherions le lien social qui constitue la langue”, “la langue n’est pas complète dans aucun, elle n’existe parfaitement que dans la masse.” (CLG, p. 30)
- 32) “les associations ratifiées par le consentement collectif, et dont l’ensemble constitue la langue (...)”. (CLG, p. 32)
- 33) “La langue existe dans la collectivité sous la forme d’une somme d’empreintes déposées dans chaque cerveau, (...) C’est donc quelque chose qui est dans chacun d’eux, tout en étant commun à tous et placé en dehors de la volonté des dépositaires.” (CLG, p. 38)
- 34) “Puis il y a le point de vue psychologue, qui étudie le mécanisme du signe chez l’individu; c’est la méthode la plus facile, mais elle ne conduit pas au delà de l’exécution individuelle et n’atteint pas le signe, qui est social par nature.” (CLG, p. 34)

3.3. 랑그의 원천/언어 (랑그) 습득의 문제

랑그를 사회적 산물로 간주하면, 촘스키의 경우와는 달리 랑그의 원천(l'origine de la langue)의 문제와 화자의 언어 습득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랑그의 존재는 화자가 내재화하기 이전에 이미 언어공동체 집단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천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며, 화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는 랑그를 내면화하는 것이므로 언어 습득의 문제만 남게 된다. 이처럼 소쉬르는 언어학에 있어서 랑그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에서도 랑그는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산물이며, 그대로 취해야만 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또 그랬었다. 언어의 기원 문제가 일반적으로 으레 생각 하듯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것은 제기될 성질의 문제조차 되지 못한다. 언어학의 진정한 단 하나의 대상은 이미 형성된 고유 언어의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삶 그 자체”³⁵⁾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랑그가 사회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랑그를 습득 혹은 화자의 뇌속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후천적 획득의 관점을 취해야 할 것이다. 소쉬르는 이처럼 “랑그는 언어(활동)의 사회적 부분이며, 개인의 외부에 있으므로 개인 혼자서는 창조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다. 랑그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맺어진 일종의 계약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한편, 개인이 랑그의 작동(jeu)을 알기 위해서는 이를 습득해야만 한다. 어린아이는 조금씩밖에는 랑그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³⁶⁾고 말하면서 후천적 습득의 관점을 피력한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 많은 경험을 통해서만 모국어는 우리의 뇌 속에 자리잡게 된다”는 언급 속에서도 명시적으로 나타난다.³⁷⁾

그러나 랑그가 사회적이라는 점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러한 언어 습득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즉, 랑그가 기호 자체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호들의 관계들로 이루어진 체계라면, 과연 이러한 체계가 화자에게 주어진 상태로 나타나는가? 왜냐하면 체계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 단위들이 확인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하게 파악될 수 있는데, 체계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라면, 과연 그러한 완전한 체계가 화자에게 제시될 수 있는가? 화자는 언제나 불완전한 빠물만을 직면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호의 체계인 랑그를 내재화할 수 있는 것인가? 화자에게 주어진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체계가 아니라 단지 기호들만은 아닌가? 그리고 체계는 화자가 이미 내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들은 소쉬르 자신의

35) “En fait, aucune société ne connaît et n’a jamais connu la langue autrement que comme un produit hérité des générations précédentes et à prendre tel quel. C’est pourquoi la question de l’origine du langage n’a pas l’importance qu’on lui attribue généralement. Ce n’est pas même une question à poser; le seul objet réel de la linguistique, c’est la vie normale et régulière d’un idiome déjà constitué.” (CLG, p. 105)

36) “Elle est la partie sociale du langage, extérieure à l’individu, qui à lui seul ne peut ni la créer ni la modifier; elle n’existe que qu’en vertu d’une sorte de contrat passé entre les membres de la communauté. D’autre part, l’individu a besoin d’un apprentissage pour en connaître le jeu; l’enfant ne se l’assimile que peu à peu.” (CLG, p. 31)

37) “c’est en entendant les autres que nous apprenons notre langue maternelle; elle n’arrive à se déposer dans notre cerveau qu’à la suite d’innombrables expériences.” (CLG, p. 37)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귀절도 이와 같은 관점을 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La langue n’est pas une fonction du sujet parlant, elle est le produit que l’individu enregistre passivement” (CLG, p. 30)

언급 속에서 더욱 부각된다. 소쉬르는 랑그 이외에도 “이 두 번째 정의에 따르면, 인간에게 자연적인 것은 언어(활동)이 아니라 구별되는 개념들에 해당하는 구별되는 기호들의 체계인 랑그를 구성하는 능력³⁸⁾”과 “기호들이 고립되어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체계로서의 언어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연합과 등위 배열의 능력³⁹⁾”에 대해 언급한다. 소쉬르는 이러한 능력들이 랑그라는 체계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들 능력은 랑그에 속하는 것인가?⁴⁰⁾ 어쩌면 화자가 이러한 능력을 랑그 이전에 내재화하고 있고, 언어공동체 속에서 기호들과 대면하면서 화자 스스로가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체계라는 것은 화자의 외부에 있는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 화자에게 개인적인 것이고, 화자의 외부에는 단지 체계를 이루고 있지 않는 기호들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것은 기호들의 체계가 아니라 기호들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4. 언어의 다양성

마지막으로 촘스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언어의 다양성 문제가 소쉬르에게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사실 소쉬르에게 있어서 언어의 다양성 문제는 촘스키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제기된다. 소쉬르의 논의 대상은 사회적 산물인 각각의 고유언어인 랑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양한 언어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의 지식으로부터 다양한 개별언어로 분화한다는 관점이 아니므로 언어의 다양성은 다양한 랑그가 존재하고 있음이 관찰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촘스키가 제기하는 것처럼 언어가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어떻게 다양해지는가 하는 문제는 소쉬르에게서는 제기되지 않는다.⁴¹⁾ 오히려 촘스키와는 반대로 언어의 보편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처럼 소쉬르는 “우리

38) “En s’attachant à cette seconde définition, on pourrait dire que ce n’est pas le langage parlé qui est naturel à l’homme, mais la faculté de constituer une langue, c’est-à-dire un système de signes distincts correspondant à des idées distinctes.” (CLG, p. 26)

39) “Il faut ajouter une faculté d’association et de coordination, qui se manifeste dès qu’il ne s’agit plus de signes isolés; c’est cette faculté qui joue le plus grand rôle dans l’organisation de la langue en tant que système.” (CLG, p. 29)

40) De Mauro는 주에서 이러한 능력이란 랑그의 구성 이전에 존재하는 선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CLG, p. 419, 주56 참조)

41) 소쉬르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소쉬르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Mauro(1972)가 지적하고 있듯이 소쉬르 언어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점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소쉬르는 언어들의 역사적 다양성을 언어체계의 각 부분의 자의적 성격에 대한 이론을 통해 성공적으로 설명한다 (소쉬르의 이론 체계 속에서 자의성의 원리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Mauro가 “소쉬르의 기호학과 언어학 이론은 언어활동/능력 (langage)의 보편적이고 유일한 능력이 어떻게 언어들의 다양함을 야기하는가를 설명하려 노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고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소쉬르가 어디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리고 소쉬르는 langage와 langue의 관계에 있어서 언어학의 “유일하고도 전적인 대상”을 langue로 간주함으로써 langage와 langue의 관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된 관심을 langue에 기울임으로써 이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Mauro가 “소쉬르의 이론은 인류의 생물적 단일성과 언어들의 역사적 다양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려한다는 주장은 소쉬르의 관점이라기보다는 Mauro의 소쉬르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언어 외적인 사항으로 CLG 제4부 ‘지리언어학(Linguistique géographique)’ 제1장 ‘언어들의 다양성에 대하여(De la diversité des langue)’에서 지리적/공간적 차이에 따른 언어의 차이를 관찰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언어 내적 요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연구의 구체적 대상은 각 개인의 두뇌 속에 저장된 사회적 산물, 즉 랑그(*la langue*)이다. 그러나 이 산물은 언어 집단에 따라 다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랑그들(*les langues*)이다. 언어학자는 관찰과 비교를 통해 언어 사이에 있는 보편적인 것을 추출해 내기 위해 가능한 많은 언어를 알아야 한다”⁴²⁾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의 다양성과 보편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에 접근하는 방향이 소쉬르와 촘스키에게 있어서 서로 반대라는 점을 지적하자.

4.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두 언어학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촘스키의 언어 연구 프로그램을 따라 소쉬르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소쉬르와 촘스키의 차이점은, 소쉬르가 언어라는 체계의 단위를 이루는 (언어)기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촘스키는 언어 단위보다는 이들의 결합규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과 더불어 소쉬르는 랑그를 사회적 산물로 간주하는 반면 촘스키는 언어능력을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차이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것은 소쉬르와 촘스키가 언어 대상을 구체적인 발화체로부터 이러한 구체적 발화체를 만들게 해주는 숨은 체계로 규정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서로의 인식론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 고 문 헌

- AMACKER, R. (1975) *Linguistique saussurienne*, Droz, Genève/Paris.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Cambridge, Mass. (Traduit en français par J.-C. Milner (1971), Le Seuil, Paris)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Praeger, New York; (한국어 번역판 : 『언어에 대한 지식』, 이선우 역, 민음사)
- CHOMSKY, N. (1990) “Sur la nature, l’utilisation et l’acquisition du langage”, in *Recherches linguistiques de Vincennes*, n° 19.
- GODEL, R. (1969) *Les sources manuscrites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e F. de Saussure*, Droz, Genève.

42) “L’objet concret de notre étude est donc le produit social déposé dans le cerveau de chacun, c’est-à-dire la langue. Mais ce produit diffère suivant les groupes linguistiques : ce qui nous est donné, ce sont les langues. Le linguiste est obligé d’en connaître le plus grand nombre possible, pour tirer de leur observation et de leur comparaison ce qu’il y a d’universels en elles.” (CLG, p. 44)

- JOSEPH, J. (1990) "Ideologizing Saussure : Bloomfield's and Chomsky's readings of th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n *Ideologies of Language* (J. Joseph & T. Taylor (eds), Routledge, London/New York).
- KOERNER, E. (1973) *Ferdinand de Saussure : Origine and Development of his Linguistic Thought in Western Studies of Language*.
- MAURO de, T. (1972) "Addenda", in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p. 393-404.
- POLLOCK, J.-Y. & H.-G. OBENAUER (eds) (1990) *Linguistique et cognition : réponses à quelques critiques de la grammaire générative*, Recherches linguistiques de Vincennes, no19, PUV, Saint-Denis.
- POPPER, K. (1973) *La logique de la découverte scientifique*, Traduction française N. THYSSEN & P. DEVAUX, Payot, Paris.
- SAUSSURE de, F. (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Lausanne, (édition de 1986); (한국어 번역판 :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옮김, 1990, 민음사)

<Résumé>

Saussure et Chomsky : essai de comparaison de leurs programmes linguistiques

JEON Kyung-Jun

Pour une discipline qui vise à appréhender des phénomènes touchant de près l'être humain, ce serait surtout la confrontation et les remises en cause de différents points de vue qui fait évoluer ce domaine. Dans cette optique, cet article essaie de comparer les programmes linguistiques de Saussure et de Chomsky, tous les deux les plus grands linguistes du 20ème siècle. Ce genre de comparaison permettra de voir plus clairs les intérêts de ces théories dans les études linguistiques. Pour cela, nous avons examiné quatre points principaux : l'objet principal de la linguistique, la nature de cet objet, l'origine du savoir linguistique et la diversité des langues.

En comparant le point de vue de Saussure par rapport au programme de Chomsky, nous avons pu conclure que Saussure s'intéresse beaucoup plus aux problèmes des signes, unités qui constituent un système, alors que Chomsky s'intéresse plus aux règles de combinaison des unités que les unités elles-mêmes. D'autre part, Saussure considère la langue comme le fait social, ce qui n'est pas du tout

le point de vue de Chomsky : pour Chomsky, la compétence linguistique est entièrement individuelle. Un locuteur-auditeur idéal de la théorie chomskyenne, c'est un individu idéalisé, et non le représentant idéal d'une communauté linguistique. Ce serait ces deux points de vue différents qui entraînent la plupart de différences de ces deux linguistes.